

부주의 화재 극복이 불의 이로움을 되찾는 길

글 공현경 경기



“엄마, 화재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날까요?”

“글쎄, 집……? 아니면 공장?”

“땡! 우리 생활 주변이 정답입니다.”

내가 머쓱해 하자, 큰딸 지은이는 재미있다는 듯이 또 말을 이어갔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불이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

지난 여름방학, 올해 5학년이 된 큰 딸 지은이가 ‘불조심 길라잡이’ 책을 펴들고 문제를 냈다. 지은이는 엄마가 잘 모른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더 신이 나서 말했다.

“엄마, 우리나라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불이 가장 많답니다.”

나는 피식 웃고 말았지만 맞는 이야기라고 고개를 끄덕이어서 주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나의 산 경험에 그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았기 때문이었다.

2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 6월 어느 날의 일이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내려앉는다. 나는 예전과는 다르게 일상생활 중에 자꾸만 깜빡깜빡 잊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날 늦은 밤에도 어느 때와 같이 아침에 먹을 국을 미리 끓이고 있었다. 혼자서 가스레인지 불에 냄비를 얹어 놓고 잠시 쉬는 동안 깜박 단잠에 들고 만 것이었다. 잠깐만 누워 있겠다는 것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가스레인지 불의 냄비에 담긴 국은 다 졸아 타버리고, 냄비를 달군 연기가 주방과 거실, 어느새 아이들이 자고 있는 작은 방에까지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나는 단잠에 빠진 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2시간쯤 흘렀나 보았다. 밤 11시 무렵에 끓이기 시작했던 국은 다행스럽게도 새벽 1시 무렵 늦은 귀가를 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끝이 났던 것이다.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타는 냄비새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찬 집안을 보고 깜짝 놀라 큰 소리를 질러서 나를 깨운 것이다.

“지은 엄마! 지은 엄마!”라고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가 자칫 화재로 변질 수 있었던 나의 부주의를 일깨워 주었고, 그것으로 화재로 이어질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다.

깜짝 놀라 뛰어 들어온 남편은 거실 불을 켜 겨를도 없이 가스레인지의 점화 스위치를 끄고, 중간 밸브를 잠갔다고 했다. 그 소동 속에 잠이 깬 나는 너무 무섭고 놀라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정말 나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해.”라고 외쳤을 뿐,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그날 그 순간, 자기 방에서 뛰어나온 큰딸 지은이의 행동은 너무 기특했다. 아직도 생생한 그 날의 기억 중 하나..., 놀라서 허둥댔 줄 알았던 지은이는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문을 활짝 열면서, “엄마! 탈출할 출입구를 확보해 놓아야 해!”라고 외쳤다.

지금 생각하면 한편 어이없기도 하지만 그 침착한 행동에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똑같이 잠에서 깬 순간이었지만, 나는 너무 놀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5학년인 지은이는 나와 다른 행동, 즉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을 무의식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날 이후 지은이가 기특하고 자랑스러워 보였다. 그날 새벽, 아들 못지않게 얼마나 든든하던지…….

지은이의 행동을 보며 예방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었다. 만약 지은이가 불조심 예방 교육을 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날 상황은 더 엉망이 되었거나, 황



당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날 이후 나는 평소에 잘 잠그지 않았던 중간 밸브까지 수시로 확인하고 잠갔으며 자기 전에 특히 한번 더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다. 비록 깜박깜박 건망증이 깊어지지만, 그런 부주의는 잘 길들여진 좋은 습관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다행히 그날 그 사건은 큰 화재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서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한 부주의로 인한 사건이었다.

“지은아,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생길 화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음, 엄마 경우처럼 가스레인지 사용 부주의, 그리고 담뱃불 부주의, 또 문어발식 플러그, 기름…….”

“정말, 화재 대부분은 다 부주의 때문이네……!”

불조심 어린이 마당에 참가한다고 ‘불조심 길라잡이’ 책을 끼고 산 큰 딸 지은이 덕분에, “아이고, 당신의 안전 불감증……, 정말 대책이 없네.”하고 수시로 핀잔을 주던 남편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그날의 사건 이후 주방의 그을림, 집안 전체에 아직 남아 있는 탄 냄새가 산 교육의 흔적인 만큼 불 사용 부주의에 대한 경계가 오히려 내 버릇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스 불 확인했냐?”, “중간밸브 잠갔는지 보고 와라.” 등등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엄마로서, 아내로서 나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불에 대한 부주의를 경계하여 나를, 우리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다.

화재는 나와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생활 속 부주의에서 일어나니 언제나 언제나 조심하고 예방하여 불의 본래 모습 그대로 언제나 이롭게 쓰이도록 만들 것이다. ☺

